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맞벌이 가구 현황과 소비특성
- 시간절약형, 취업, 자녀양육 관련 산업 육성

목 차

■ 맞벌이 가구 현황과 소비특성

- 시간절약형, 취업, 자녀양육 관련 산업 육성

| | |
|---------------------------|---|
| Executive Summary | i |
| 1. 개요 | 1 |
| 2. 맞벌이 가구 현황 및 소비특성 | 2 |
| 3. 시사점 | 9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산 업 연 구 실 : 김 천 구 선 임 연 구 원 (2072-6211, ck1009@hri.co.kr)

□ 맞벌이 가구 현황과 소비특성

- 시간절약형, 취업, 자녀양육 관련 산업 육성

■ 개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구는 점차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맞벌이 가구란 유배우 가구(가구주 혼인 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가구) 중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맞벌이 가구의 소비구조가 비맞벌이 가구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 맞벌이 가구 현황 및 소비특성

(맞벌이 가구 현황)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014년 502.8만 가구(가계동향조사 기준)로 전체 유배우 가구의 41.7%를 차지하였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가구는 맞벌이인 경우가 적었다.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보다 가구주 평균연령이 4.1세 어리고 평균 가구원수는 0.3명 많았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 소득의 1.4배인데 이것은 대부분 배우자 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맞벌이 가구 소비특성) 맞벌이 가구는 시간절약과 관련된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식료품비의 지출은 적었다. 맞벌이 가구는 부족한 가사노동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외식비, 편의식품비, 가사서비스, 의복관련서비스 등 시간절약형 소비에 지출을 많이 한다. 맞벌이 가구의 시간절약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9.9%로 비맞벌이 가구의 9.4%보다 0.5%p 높았다. 하지만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의 특성상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낮았다.

맞벌이 가구는 취업(경제활동) 관련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오락·문화비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맞벌이 가구는 취업과 관련된 지출인 교통비, 통신비, 의류비 등의 지출을 비맞벌이 가구보다 많이 한다. 맞벌이 가구의 취업 관련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26.2%로 비맞벌이 가구의 25.3%보다 0.9%p 높았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여 비맞벌이 가구 보다 오락·문화비의 지출이 적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양육과 관리를 위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수도·광열 등에 관련된 소비 비중은 낮았다.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출근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 줄 시설이 필요하므로 학원에 보내는 가정이 많고 보육료 지출이 많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관련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8.5%로 비맞벌이 가구의 7.5%보다 1.0%p 높았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 수도, 광열 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 시사점

향후 맞벌이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맞벌이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맞벌이 가구 증가로 시간절약형, 취업, 자녀양육 등에 관련된 서비스업의 성장이 예상되므로 이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시간절약형, 자녀양육과 관련된 산업은 생산성이 낮은 분야이므로 이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계층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맞벌이로 소득이 늘지만 시간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넷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및 쇼핑 시간 등에 관한 빅데이터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해야 한다.

1. 개요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구는 점차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향후 국내의 노동투입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은 2000년 52.0%에서 2005년 54.5%, 2010년 54.5%, 2014년 57.0%로 서서히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¹⁾

- 여성의 고용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맞벌이 가구의 비중²⁾은 2006년 39.1%에서 2010년 41.4%, 2014년 41.7%로 점차 늘어가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 유도로 앞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더욱 늘어난다면 맞벌이 가구 역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맞벌이 활동은 가계 소득 측면에서 부를 증대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부족해진 가사노동을 보완하는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침

- 맞벌이 가구는 가사노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매
- 또한 여성의 취업 증가는 출퇴근 시 필요한 의복비, 교통비 등과 관련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맞벌이 가구의 상이한 소비 구조는 향후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가계의 맞벌이 활동으로 품목별 소비지출이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산업구조 역시 가계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 본 보고서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비구조가 비맞벌이 가구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2013년) : OECD 평균 62.6%, 미국 67.2%, 독일 72.4%, 일본 65.0%.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

2. 맞벌이 가구 현황 및 소비특성

1) 분석방법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유배우 가구(가구주 혼인 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가구) 중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를 구분하였으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 비중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집단끼리 비교
 -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 비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중 한명이 취업자 혹은 부부 모두 미취업자인 경우
 -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구의 소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2014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분석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역시 맞벌이 가구 수와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제공되지만 맞벌이, 비맞벌이 가구의 소비 구조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가계동향조사를 사용
 - 가계동향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이외 가구로 구분이 가능하며 소비 항목은 12개 대분류와 97개 중분류, 393개 소분류로 구성
 -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소비패턴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원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배우 가구(동거, 비동거 모두 포함) 만을 대상으로 분석
 - 분석 대상은 전국 1인 이상 가구 및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함
 - 연간 자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분석은 최근 년인 2014년을 기준으로 분석
 - 맞벌이 가구는 평균적으로 비맞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 비중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집단끼리 비교
 -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 보다 소득 수준이 높음에 따른 소비패턴의 차이가 발생
 -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으면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선택재의 소비 비중은 높아짐³⁾
 -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구를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슷한 소득 수준끼리 비교

3) 필수재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 또는 서비스, 선택재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 또는 서비스.

2) 맞벌이 가구 현황

○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014년 기준 약 41.7%였으며 40대와 50대에서 맞벌이 가구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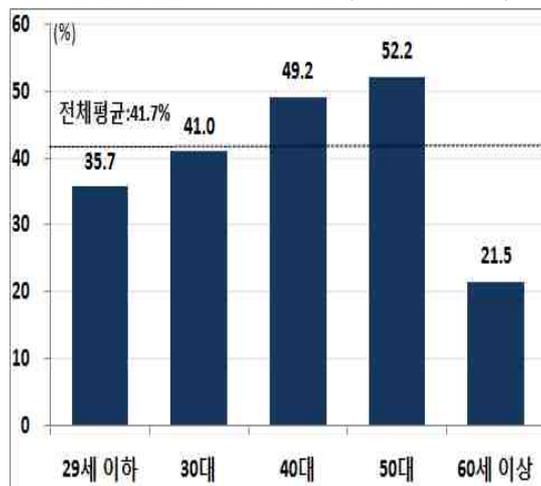
-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02.8만 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구의 41.7%를 차지
 - 가계동향조사 기준 2014년 유배우 가구는 1,205.3만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502.8만 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구의 41.7%를 차지
 - 유배우 가구 중 비맞벌이 가구는 702.5만 가구로서 전체 유배우 가구의 58.3%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의 맞벌이가구 비중 43.9%(전체 유배우 가구 1,182.5만 가구 중 맞벌이가구 518.6만 가구)와 큰 차이는 없었음
-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40대와 50대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전체 평균을 상회
 -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 49.2%, 50대 가구는 52.2%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 고령 가구는 맞벌이 비중은 21.5% 29세 이하 가구는 35.7%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맞벌이,비맞벌이 가구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2)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맞벌이 가구 비중.

<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가구주 기준)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2)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

○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보다 가구주 평균연령이 4.1세 어리고 평균 가구원수는 0.3명 많았으며 소득은 1.4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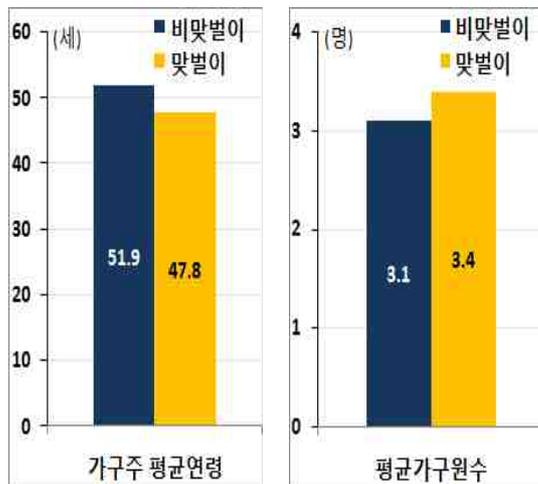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보다 가구주 평균연령이 어리고 평균 가구원수는 많았음

- 맞벌이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47.8세로 비맞벌이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 51.9세 보다 약 4.1세 어렸음
- 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4명으로 비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3.1명보다 0.3명 많았음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 소득의 1.4배인데 이것은 대부분 배우자 소득의 차이에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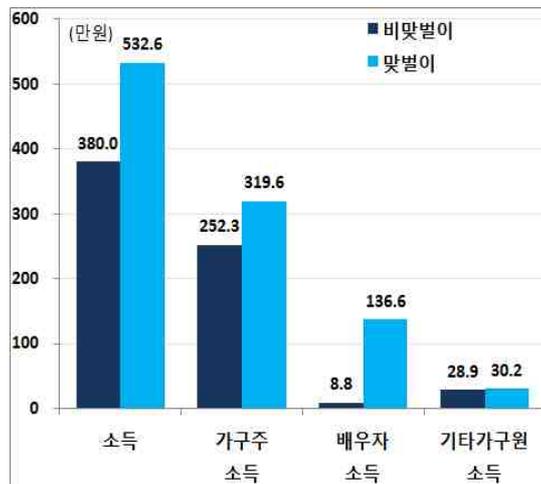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532.6만원으로 비맞벌이 가구 소득 380.0만원보다 약 1.4배 높았음⁴⁾
- 맞벌이 가구의 가구주 소득은 319.6만원 배우자 소득은 136.6만원 비맞벌이 가구의 가구주 소득은 252.3만원 배우자 소득은 8.8만원이었음
- 다만 맞벌이 가구주의 소득 역시 비맞벌이 가구주의 소득보다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40, 50대 가구에서 맞벌이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 맞벌이,비맞벌이 가구주 평균연령 및 평균가구원수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 맞벌이, 비맞벌이 가구 소득 비교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4) 맞벌이 가구의 소비지출은 294.3만원으로 비맞벌이 가구 소비지출 239.5만원보다 약 1.2배 높았음

3) 맞벌이 가구 소비특성

○ 맞벌이 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은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이었으며 소비 비중이 낮은 품목은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보건 등이었음

- 맞벌이 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은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임
 - 맞벌이 가구(중산층 기준)의 교통, 통신의 소비 비중은 각각 13.2%, 6.7%로 비맞벌이 가구의 13.0%, 5.8%보다 각각 0.2%p, 0.9%p 높았음
 - 교육, 음식·숙박의 소비 비중은 맞벌이 가구(중산층 기준)가 13.2%, 13.7%로 비맞벌이 가구 보다 각각 2.9%p, 1.1%p 높았음

- 반면 소비 비중이 낮은 품목은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보건 등임
 - 맞벌이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의 소비 비중은 각각 13.4%, 9.7%, 5.5%로 비맞벌이 가구보다 -1.6%p, -1.3%p, -1.7%p 낮았음
 - 의류·신발의 경우 비슷한 소득 집단(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끼리 비교시 평균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지출 비중이 높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음
 -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구의 소비 비중이 비슷하지만 가정용품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비맞벌이 가구가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음

< 중산층 맞벌이, 비맞벌이 가구의 품목별 소비 비중(대분류 기준) >
(%, %p)

| | 맞벌이 (A) | 비맞벌이 (B) | 맞벌이 비맞벌이 소비비중 차이 (A-B) |
|------------|---------|----------|------------------------|
| 식료품·비주류음료 | 13.4 | 15.0 | -1.6 |
| 주류·담배 | 1.2 | 1.1 | 0.1 |
| 의류·신발 | 6.4 | 6.4 | 0.0 |
| 주거·수도·광열 | 9.7 | 11.0 | -1.3 |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3.6 | 3.7 | -0.1 |
| 보건 | 5.5 | 7.2 | -1.7 |
| 교통 | 13.2 | 13.0 | 0.2 |
| 통신 | 6.7 | 5.8 | 0.9 |
| 오락·문화 | 5.2 | 5.8 | -0.6 |
| 교육 | 13.2 | 10.3 | 2.9 |
| 음식·숙박 | 13.7 | 12.6 | 1.1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2) 중위소득 50~150% 가구 기준.

3) 맞벌이 가구 중 중산층 비중은 64.7%, 비맞벌이 가구 중 중산층 비중은 67.0%임.

○ 맞벌이 가구는 시간절약과 관련된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식료품비의 지출은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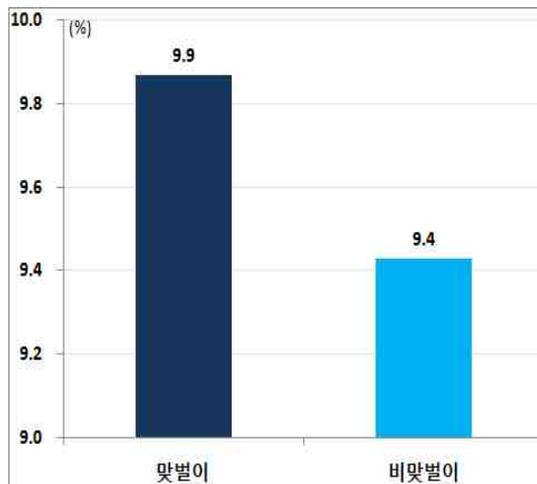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는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외식비, 가사서비스, 의복관련서비스 등 시간절약형 지출이 많음

- 맞벌이 가구는 부족해지는 가사노동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외식비, 편의식품비, 가사서비스, 의복관련서비스 등 시간절약형 소비지출이 많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절약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9.9%로 비맞벌이 가구의 9.4%보다 0.5%p 높았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 55분으로 외벌이(남편만 취업 : 3시간 16분, 아내만 취업 2시간 13분) 가구보다 크게 적었음

- 반면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의 특성상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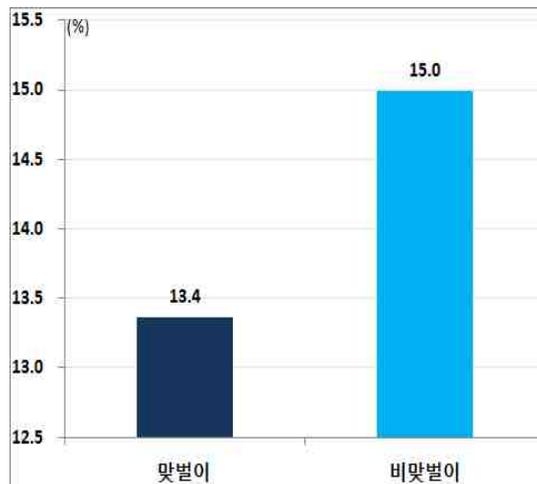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는 주중에 집에서 밥을 직접 해먹는 경우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적으므로 식료품비 지출이 적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식료품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13.4%로 비맞벌이 가구의 15.0%보다 1.6%p 낮았음

< 시간절약 관련 소비 비중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시간절약형 소비=외식비+편의식품비+가사서비스+의복관련서비스.
 2)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3) 중위소득 50~150% 가구 기준.

< 식료품 소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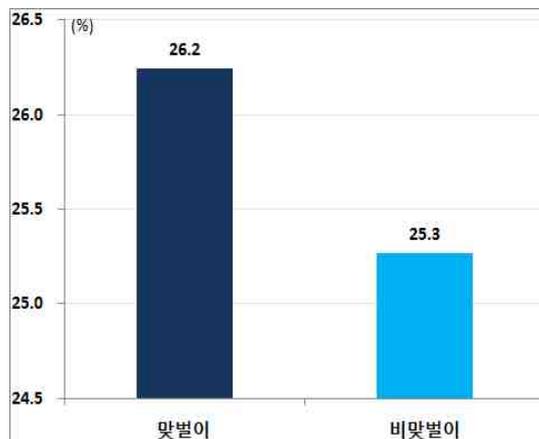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2) 중위소득 50~150% 가구 기준.

○ 맞벌이 가구는 취업(경제활동) 관련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여가 시간의 부족으로 오락·문화비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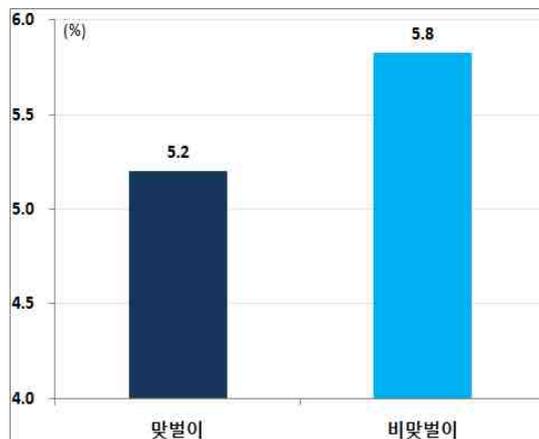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는 소득 중 교통비, 통신비, 의류비 등 취업과 관련해서 많은 지출을 함
 - 맞벌이 가구는 취업과 관련된 지출인 교통비, 통신비, 의류비 등의 지출 비중이 비맞벌이 가구보다 높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취업 관련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26.2%로 비맞벌이 가구의 25.3%보다 0.9%p 높았으며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 역시 맞벌이 가구의 취업 관련 소비 비중이 높았음
 - 맞벌이 가구의 일(수입노동)과 관련된 시간활용은 5시간 33분으로 외벌이(남편만 취업 : 3시간 7분, 아내만 취업 : 3시간 5분)보다 월등히 높음
-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여 오락·문화비 지출이 적음
 - 맞벌이 가구는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여 비맞벌이 가구 보다 오락·문화비의 지출이 적었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오락·문화비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5.2%로 비맞벌이 가구의 5.8%보다 0.6%p 낮았으며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 역시 맞벌이 가구의 오락·문화에 관련된 소비 비중이 낮았음
 - 맞벌이 가구의 여가생활시간은 3시간 49분으로 외벌이(남편만 취업 : 4시간 8분, 아내만 취업 : 5시간 53분)보다 크게 적음

< 취업 관련 소비 비중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취업관련 지출 = 교육비+통신비+의류신발
 2)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3) 중위소득 50~150% 가구 기준.

< 오락·문화비 소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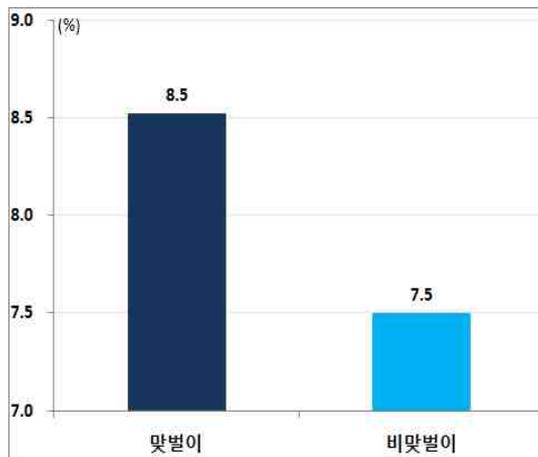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2) 중위소득 50~150% 가구 기준.

○ 맞벌이 가구는 자녀양육과 관리를 위한 사교육비, 보육료 지출 비중은 높은 반면 수도·광열 등에 관련된 소비 비중은 낮음

- 맞벌이 가구는 자녀관리를 위해 사교육비, 보육료 등의 지출이 많음
 -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출근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 줄 시설이 필요하므로 학원에 보내는 가정의 많고 보육료⁵⁾ 등 지출이 높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양육 관련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8.5%로 비맞벌이 가구의 7.5%보다 1.0%p 높았음
 -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 역시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비, 보육료에 관련된 소비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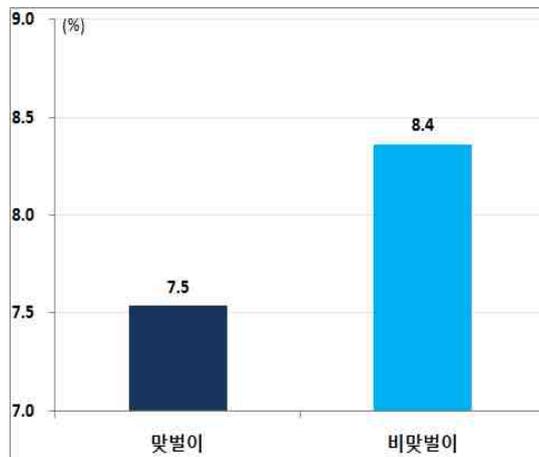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 수도·광열 등에 관련된 소비는 적음
 - 맞벌이 가구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 수도, 광열 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오락·문화비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7.5%로 비맞벌이 가구의 8.4%보다 0.9%p 낮았음
 - 맞벌이 가구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가사노동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반면 일, 학습, 이동 등 집 이외의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

< 자녀양육 관련 소비 비중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취업관련 지출 = 교육비+통신비+의류신발
 2)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3) 중위소득 50~150% 가구 기준.

< 수도·광열비 소비 비중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2) 중위소득 50~150% 가구 기준.

5) 정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최근 가계의 보육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

3. 시사점

- 향후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시간절약형, 취업, 자녀양육 등에 관련된 소비 지출이 늘어나며 이들 산업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맞벌이 가구 증가로 시간절약형, 취업, 자녀양육 등에 관련된 서비스업의 성장이 예상되므로 이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과거의 가계생산서비스를 대체하는 시장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시장서비스 관련 업종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분야의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시간절약형, 자녀양육 관련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계층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산업 육성에 주력
 - 시장에서 공급하는 가사도우미(가정부), 육아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아직까지 생산성이 높지 않음
 - 시간절약형, 자녀양육 관련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맞벌이 가구의 시간활용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
- 맞벌이로 소득은 높지만 시간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 적극 활용
 -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탐색 시간을 낮추는 동시에 고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을 개발
 - 맞벌이 가구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온라인 사이트 및 모바일앱 등을 개발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을 이용

-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및 쇼핑 시간 등에 관한 빅데이터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
 - 쇼핑과 외식, 여가 등을 동시에 즐기는 원스톱 쇼핑, 주말에 아울렛, 창고형 할인점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패턴,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하는 애프터쇼핑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원스톱 쇼핑, 대량구매 등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과 쇼핑 시간 활용에 관한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관리, 분석 등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활용

김천구 선임 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부록-1 > 가계동향조사 품목별 분류표

| 대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
|----------------|---|-------|---|------------------------|
| 식료품 ·비주류음료 |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 교통 |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 |
| |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 | 통신 |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
| | 주류·담배 | | 주류 담배 | 오락·문화 |
| 의류신발 |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 교육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학원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 |
| 주거·수도·광열 |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 음식·숙박 | 식사비 숙박비 | |
|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섬유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가사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 | | 기타 상품서비스 |
| 보건 |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 | | |

< 부록-2 > 맞벌이·비맞벌이 가구의 품목별 소비 비중 비교

(%)

| | | | 저소득층 | 중산층 | 고소득층 |
|-------------------------|---------------|------|------|------|------|
| 맞벌이 가구 소비비중 높은 품목 | 시간절약 관련 소비 | 맞벌이 | 8.3 | 9.9 | 11.3 |
| | | 비맞벌이 | 7.4 | 9.4 | 9.6 |
| | 취업 관련 소비 | 맞벌이 | 23.4 | 26.2 | 26.7 |
| | | 비맞벌이 | 19.9 | 25.3 | 25.4 |
| | 자녀양육 관련 소비 | 맞벌이 | 4.0 | 8.5 | 7.3 |
| | | 비맞벌이 | 3.0 | 7.5 | 7.2 |
| 맞벌이 가구 소비비중 낮은 품목 | 식료품 소비 | 맞벌이 | 17.2 | 13.4 | 10.8 |
| | | 비맞벌이 | 22.1 | 15.0 | 12.0 |
| | 오락·문화 소비 | 맞벌이 | 6.0 | 5.2 | 6.3 |
| | | 비맞벌이 | 3.9 | 5.8 | 7.2 |
| | 주거·광열 소비 | 맞벌이 | 10.9 | 7.5 | 6.5 |
| | | 비맞벌이 | 12.8 | 8.4 | 7.7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주 : 1) 자녀양육 관련 지출=사교육비+보육료.

2) 전국 1인 이상 유배우 가구 기준.

3)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

< 부록-3 > 맞벌이·외벌이 가구의 시간활용

(단위 : 분)

| | 맞벌이 | | | 외벌이 | | | | | |
|------------|-------|-------|-------|--------|-------|-------|--------|-------|-------|
| | 전체 | 남편 | 아내 | 남편만 취업 | | | 아내만 취업 | | |
| | | | | 전체 | 남편 | 아내 | 전체 | 남편 | 아내 |
| 필수생활시간 | 10:55 | 10:59 | 10:51 | 11:07 | 11:04 | 11:10 | 11:18 | 11:44 | 10:57 |
| 수면 | 7:42 | 7:45 | 7:38 | 7:50 | 7:44 | 7:57 | 7:57 | 8:20 | 7:40 |
| 식사 및 간식 | 1:59 | 2:03 | 1:55 | 2:04 | 2:07 | 2:01 | 2:01 | 2:06 | 1:57 |
| 기타 개인유지 | 1:14 | 1:11 | 1:18 | 1:12 | 1:13 | 1:11 | 1:19 | 1:18 | 1:20 |
| 의무생활시간 | 9:17 | 8:53 | 9:42 | 8:14 | 8:47 | 7:35 | 6:49 | 3:23 | 9:26 |
| 일(수입노동) | 5:33 | 6:11 | 4:52 | 3:07 | 5:52 | 0:05 | 3:05 | 0:20 | 5:11 |
| 가사노동 | 1:55 | 0:41 | 3:13 | 3:16 | 0:46 | 6:00 | 2:13 | 1:39 | 2:39 |
| 학습 | 0:02 | 0:02 | 0:02 | 0:06 | 0:03 | 0:09 | 0:06 | 0:11 | 0:02 |
| 이동 | 1:47 | 1:59 | 1:35 | 1:45 | 2:06 | 1:21 | 1:25 | 1:13 | 1:34 |
| 여가생활시간 | 3:49 | 4:08 | 3:28 | 4:41 | 4:08 | 5:16 | 5:53 | 8:54 | 3:37 |
| 교제 | 0:34 | 0:32 | 0:37 | 0:42 | 0:34 | 0:51 | 0:38 | 0:42 | 0:36 |
| 미디어 이용 | 1:56 | 2:10 | 1:40 | 2:24 | 2:08 | 2:41 | 3:11 | 5:05 | 1:45 |
| 실시간 방송(TV) | 1:40 | 1:50 | 1:28 | 2:01 | 1:46 | 2:18 | 2:47 | 4:20 | 1:35 |
| 종교·문화·스포츠 | 0:35 | 0:37 | 0:32 | 0:48 | 0:39 | 0:56 | 1:07 | 1:52 | 0:35 |
| 스포츠 및 레포츠 | 0:24 | 0:29 | 0:18 | 0:32 | 0:30 | 0:34 | 0:52 | 1:33 | 0:21 |
| 기타 여가활동 | 0:23 | 0:30 | 0:16 | 0:27 | 0:30 | 0:24 | 0:32 | 0:51 | 0:19 |

자료 :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주 : 1) 기타 개인유지 : 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외모관리 등.

2) 가사노동 :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3) 기타 여가활동 : 집단게임·놀이, 컴퓨터·모바일게임, 개인 취미활동, 유흥 등.